

초등학생용 부모애착척도의 구성*

이현숙

홍상황[†]

창원 용남초등학교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Fraley, Waller 및 Brennan(2000)이 개발한 개정판 친밀관계경험 질문지(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Revised: ECR-R)의 문항 제작과정을 근거로 하여 아동의 애착유형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한 아동용 부모애착척도를 구성하고 기본적인 신뢰도와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한 몇 가지 문항특성정보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ECR-R의 원래 문항과 기존의 애착검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항들을 수집하여 1차 예비문항을 도출하고, 이를 4~6학년 아동이 이해하기 쉽고 근거한 원문항의 의미와 최대한 같도록 수정하고 보완하여 2차 예비문항을 작성한 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N=576명)에게 실시하였다. 수거한 자료를 사용해서 2모수 등급반응모형을 적용하여 30문항으로 된 애착척도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아동용 부모애착검사의 내적 합치도는 회피척도의 경우 .94~.95, 불안척도의 경우 .85~.86의 범위이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회피척도의 경우 .71~.77, 불안척도의 경우 .53~.68의 범위이었다. 또한 문항반응이론(IRT)을 적용하여 문항변별도와 문항정보값을 살펴본 결과 문항변별도는 적절한 범위에 있었고 문항정보값 역시 높았다. 위계적 군집분석인 K-means방법을 적용한 결과 안정형, 거부형, 몰두형, 두려움형의 4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애착유형에 따른 애착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한 결과 회피와 불안척도는 안정형, 몰두형, 거부형, 두려움형 애착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타당도와 관련한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애착, 애착유형, 부모애착

* 본 연구는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홍상황/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경남 진주시 신안동 380

Tel : 055-740-1294, E-mail : shhhong@cue.ac.kr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이다. 원만하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는 심리적인 안정과 행복의 중요한 요건이 되지만 불만족스럽고 조화롭지 못한 관계는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게 한다. Bowlby(1958)는 유아가 자신의 일차적 양육자와의 사이에서 형성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애착이라고 정의하고 유아들은 자신에게 신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성인과의 의존적인 관계형성이 중요하다는 애착이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아동이 생후 초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하는 애착경험은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하고 동시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초기의 애착경험을 토대로 또래들과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초기의 또래관계는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 원형이 될 뿐만 아니라 성격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영유아는 또래관계가 더 활발하고 문제해결상황에서도 더 성취지향적인 경향을 나타낸다(고경애, 1984). 반면에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불안정한 애착 또는 애착 결여는 영유아의 정서발달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고 상호작용적인 대인관계에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여러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허나원, 2001).

영아기에 형성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이후의 자기지각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형성의 기

초가 된다. 부모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은 자기개념이 긍정적이고(정현희, 오미경, 1993),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학생들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더 높다(장휘숙, 1997a). 또한 정체감이 더 잘 발달되어 있고 심리적 안녕과 일상생활의 만족감이 더 높다(유복귀희, 2007; 장휘숙, 2007a; 정현희, 오미경, 1993). 그리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동일수록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우울성향이 낮다(박현정, 2001).

부모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일수록 새로운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전의 경험을 더 잘 활용하는 한편, 타인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상황에 적절한 정보를 탐색하여 효과적인 결정을 하고(이하경, 2003) 동시에 자존감이 높으며, 문제해결능력 역시 우수하고 갈등상황에 직면해서 더 적절하게 잘 대처한다(Torquati & Vazsonyi, 1999). 또한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질적 특성은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동기의 성공적인 또래관계의 형성은 이후의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Hazan & Shaver, 1987; Simpson, Rholes, & Phillips, 1996).

이러한 연구들에서 애착의 여러 차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청소년이나 성인 애착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모델이 등장하였다. Ainsworth, Blehar, Waters 및 Wall(1978)은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낯선 상황 실험에서 애착유형을 안정(Secure attachment), 불안정과 회피(insecure-avoidance attachment), 불안정과 저항(insecure-resistant attachment) 등의 3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그 후 Main과 Solomon(1986)은 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었던 영아들 사이에서 일관성 있게 관찰되는 4번째 유형으로 불안정한-혼란된 (insecure-disorganized) 유형을 제안하였다. 그 이후 Hazan과 Shaver(1987)는 유아에게 사용되었던 애착의 3가지 유형을 성인관계영역에 적용하여 안정, 회피, 불안/양가의 3유형으로 나누었고 Main과 Solomon(1986)은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을 개발하여 낯선 상황 실험에서 확인된 안정-자율형(Secure-autonomous), 불안정-거부형(Insecure-dismissing), 불안정-집착형(Insecure-preoccupied), 불안정 미해결/조직원형(Insecure-unresolved/ disorganized)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이 성인까지 지속된다고 하였다. 이후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Bowlby의 이론을 근거로 내적 작동모형에 초점을 두고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 부정의 표상을 구분하여 안정(Secure), 몰두(preoccupied), 거부(dismissing), 두려움(fearful) 등 4가지 애착 유형으로 개념화하였다. 장휘숙(1997b)은 애착의 3범주와 4범주 모델을 비교한 결과 성인의 애착관계는 유아와 양육자 사이의 애착관계보다 더 복잡한 관계형성의 과정이고, 성장과정 동안 개인이 경험하는 우정이나 사랑관계의 형성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개인의 내적 작동모형을 변화시킬 기회를 제공하므로 유아기의 애착 양식을 그대로 적용한 3범주보다는 4범주 모델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강진경(2000)은 3범주와 4범주의 모델을 분석한 결과 4범주 모델은 3범주 모

델과 개념적으로 유사하게 대응하는 유형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동시에 3범주 모델에 비하여 회피적 유형을 보다 세분화한다고 하였다. 초등학생 역시 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관계에서 확장되어 친구들이나 교사와의 새로운 관계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3범주 모델보다는 4범주 모델이 더욱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애착 모형이나 이론 및 측정도구가 개발되기는 하였지만 아동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애착정도나 애착의 질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영아들에게 사용되었던 낯선 상황 절차는 초등학교 아동에게는 적절하지 않고, 대안으로 개발된 Q-sort 방법은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아동과 비슷한 정도에 따라 행동카드를 10장씩 묶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행동을 규격화시키기 때문에 읽고 쓰기가 가능한 초등학교 아동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전영식(2007)은 장애아동의 애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애착 Q-set을 사용하게 되면 최대 적용연령인 5세보다 높은 6세까지 확장해서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규준점수와의 상관이 낮아서 애착안정성이 낮게 나오거나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등학교 연령에 해당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애착척도가 필요하다고 제안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령기 아동의 애착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들어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고안되었다(Green, Stanley, & Goldwyn, 2003). Green 등(2003)은 학령기 아동들의 내적 작동모형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영아와 성인기 애착연구들에 적용되었던 여러 개념과 방법론을 응용하여 인형놀이 완성 방법인 맨체스터 아동애착이야기검사(The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실시하고 채점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고, 애착유형 분류를 위한 절차와 평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과 유사한 자기보고형질문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되고 있다(성낙훈, 1997). 초등학교 아동의 경우 인지능력이 점차 발달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애착을 평가하는데 있어 행동관찰기법을 사용하기 보다는 자기보고식 측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Armsden & Greenberg, 1987)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 개정판(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을 옥정(1998)이 번역한 것을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 맞게 수정한 것과 Collins와 Read(1990)가 제작한 개정된 성인애착척도(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RAAS)을 초등학교 고학년에 맞게 수정한 것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IPPA-R은 부모문항(25문항)과 또래문항(25문항)을 포함하고 있고 5점 평정척도로 신뢰, 의사소통 및 소외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점수와 의사소통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소외점수를 뺀 점수로 개인의 애착점수를 계산한다. 이 척도는 애착 안정의 상대적 차이만을 확인하여 애착이 높은 집단

또는 낮은 집단으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Ainsworth의 애착유형과 같이 애착의 질적 특성을 바탕으로 애착유형을 구분해 내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리고 RAAS는 친밀 6문항, 의존 6문항, 불안 6문항, 총 18문항의 5점 평정척도로 된 자기보고형 질문지이고, 3개 척도 중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척도로 애착유형을 결정한다. 친밀과 의존차원의 점수가 높고 불안차원의 점수가 낮으면 안정애착, 세 차원에서 모두 낮으면 회피애착, 세 차원에서 모두 높으면 불안/양가애착으로 볼 수 있다. 애착유형별 특징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는데, 안정유형은 친밀과 의존 척도에서 상위 30%, 불안척도에서 하위 70%, 회피유형은 친밀과 의존 점수에서 하위 30%, 불안점수에서 하위 70%, 불안/양가 유형은 불안 점수에서 상위 30%인 피험자로 분류한다(고은정, 1996). 이러한 방법은 집단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애착유형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최근 Brennan, Clarks 과 Shaver(1998)는 기존에 출판되거나 미출판된 성인 애착유형 검사의 문항들을 근거로 36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애착측정 질문지(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ECR)를 개발하였다. 회피와 불안특성에 해당되는 두 개의 독립요인이 산출되었고 4개의 그룹으로 군집시켰을 때 Bartholomew가 제안한 성인애착의 4유형과 일치하였다. 이후 Fraley, Waller 및 Brennan(2000)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4가지 애착유형검사 Brennan, Clarks 및 Shaver(1998)의 ECR, Collins와 Read(1990)의 AAS, Griffin과 Bartholomew(1994)의 RSQ,

Simpson(1990)에 대해서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여 각 검사의 측정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 ECR이 애착을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Fraley 등(2000)은 ECR 척도의 자료에 대해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여 ECR-R로 개정하였는데, 그 신뢰도와 구성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성현(2004)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ECR-R을 적용한 결과 애착유형을 적합하게 판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문항은 이해하기 어렵고 청소년대상에게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평정절차만을 거쳤을 뿐 아동이나 청소년 수준에 맞게 문항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애착척도들은 단지 애착의 상대적 차이만을 확인하여 애착의 질적 특성을 바탕으로 애착유형을 구분해 내지 못하고, 애착유형을 구분하더라도 신뢰도가 낮고, 집단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등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유형을 측정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여 아동의 애착유형을 손쉽게, 빠른 시간 안에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구들이 지니는 문제점이나 단점을 보완하고, 아동의 애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자

기보고식 검사를 개발하여 그 신뢰도를 알아보고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해서 문항의 양호도 및 특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방 법

연구대상

애착검사의 예비문항을 도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경상남도 소재 3개 초등학교 4~6학년 576명(남 306명, 여 27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중 성별, 학년, 연령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문항 수가 5%이상인 자료 11부를 제외한 56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대상자 565명 중 남학생 300명(53.1%), 여학생 265명(46.9%)이었고, 평균 연령은 11.09세($SD=.85$)였다. 그리고 전체 대상자 중 4학년 183명(남 103명, 여 80명, 평균연령 10.05세($SD=.20$)), 5학년 196명(남 99명, 여 97명, 평균연령 11.06세($SD=.24$)), 6학년 186명(남 96명, 여 90명, 평균연령 12.09세($SD=.21$))이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 U초등학교 4~6학년 100명(남 51명, 여 49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중 성별, 학년, 연령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누락 문항수가 5%이상인 자료 13부를 제외한 8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중 남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인원수		학년별 학생수			평균연령(SD)
	남자	여자	4학년	5학년	6학년	
본 검사 실시	300	265	183	196	186	11.09(.85)
검사-재검사 신뢰도	41	46	29	31	27	10.03(.09)

학생 41명(41.1%), 여학생 46명(52.9%)이었고, 평균연령은 10.03세($SD=.09$)이었다. 그리고 4학년 29명(남 14명, 여 15명, 평균연령 9.04세($SD=.08$)), 5학년 31명(남 14명, 여 17명, 평균연령 10.03세($SD=.07$)), 6학년 27명(남 13명, 여 14명, 평균연령 11.02세($SD=.07$))이었다.

연구도구

아동용 부모애착검사의 문항을 도출하고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Fraley 등(2000)이 개발한 개정판 친밀관계경험검사(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의 원문항을 일차적으로 번역하고, 애착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 개정판(IPPA-R; Arnsden & Greenberg; 옥정(1998)), 성인애착척도 번역(RAAS; Collins & Read; 민영숙(2006)), 성인애착질문지(AAQ; Simpson, Rholes & Nelligan; 김나리(2002)), 청소년 애착 척도(IAA; Monique Jimenez; 권창현(2004))의 문항을 수집하여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자료처리

수집한 자료 중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하였거나 대상아동이 성별, 연령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본 연구에서 사용할 여러 개별 척도 별로 척도문항 수의 5% 이상을 응답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자료를 윈도우즈용 SPSS 1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

계 처리하였다. 첫째, 척도별 문항의 왜도, 첨도,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전체상관, 내적 합치도(Cronbach α), 문항의 의미 등을 고려하고,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고려한 2모수 등급반응모형(two-parameter graded response model, 2P GRM)을 적용하여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2모수 등급반응모형에 의한 문항변별도, 문항정보를 계산하기 위해 MULTILOG 6.0(Thissen, 1991)을 사용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였다. 셋째, 애착 유형을 나누기 위해 회피와 불안의 표준 점수들에 대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 중 Ward의 방법을 이용하였고, 비위계적 군집절차인 K-means 방법 중 최적화방법을 이용하여 애착 유형을 나누었다. 넷째, 군집들이 결정된 후 유형별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군집분석으로 나누어진 유형들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하고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문항작성과 척도의 구성

아동용 애착검사의 예비문항을 작성하기 위해 먼저 연구자가 ECR-R을 원문항의 뜻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1차 번역한 후, 연구자와 영문학과 국어교육 석사학위를 소지한 2명이 원문항과 번역된 문항을 다시 검토하여 원문항의 의미를 잘못 반영하거나 어색

표 2. 하위 요인별 내용 및 문항 수

차원	요인	내 용	문항수
회피	친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편안해하는 정도	6
	의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아들이는 정도	4
	신뢰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정도	10
	의사소통	부모와의 대화 시에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과 동시에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준다고 여기는 정도	9
불안	불안	자신의 가치에 대한 걱정과 자신이 부모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향	19
	소외	부모가 자신과 무관하고,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과 좌절감의 정도	8

한 부분을 수정하였다. 이렇게 수정한 문항을 연구자가 애착의 개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ECR-R 36문항과 기존의 4가지 애착척도(IPPA-R, RAAS, AAQ, IAA)의 96문항, 총 132문항의 의미를 고려하여, 표 2와 같이 불안, 친밀, 의존, 신뢰, 의사소통, 소외 등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회피의 하위요인 중 친밀은 ECR-R, RAAS, AAQ의 하위요소에서, 의존은 RAAS의 하위요소에서, 신뢰와 의사소통은 IPPA-R의 하위요소에서 추출하고, 불안의 하위요인 중 불안은 AAQ, ECR-R, RAAS의 하위요소에서, 소외는 IPPA-R의 하위요소에서 명명한 것을 사용하였고, 각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의 의미를 기준으로 하위요인을 종합할 수 있는 회피와 불안으로 나누었다. 132개 예비문항을 초등학교 교사경력 5년 이상인 3명의 교사와 연구자가 4~6학년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가능한 ECR-R의 원문항의 의미와 최대한 같도록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수정 보완한 내용을 연구자, 상담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대학원생 1명이 원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되어 있는지를 검토

하여 총 56문항을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성한 아동애착검사는 아동의 애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0), 약간 그렇다(1), 대체로 그렇다(2), 매우 그렇다(3)의 4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아버지) 또는 어머니(아버지)처럼 돌봐주신 분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묻는 문제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착을 각각 측정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주축요인분석, 베리맥스 회전하여 요인분석하였다(표 3). 그 결과 2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요인 1은 회피, 요인 2는 불안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아버지의 전체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회피 26.31%, 불안 15.40%, 전체 41.71%, 어머니의 설명력은 회피 27.49%, 불안 16.99%, 전체 44.48%이었고, 하위 척도간 상관분석 결과 아버지 .41($p < .01$), 어머니 .50($p < .01$)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문항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였는데, 여러 가지 모형 중 정답과 오답사이의 중간 능력을 고려하여 피험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범주화하여 점수화할 때 사용되는 모형인 Samejima(1969)의 등급반응모형을 적용하였다.

초등학생용 부모애착척도의 구성

표 3. 요인분석 결과

문항	어머니		아버지	
	요인1	요인2	요인1	요인2
45.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잘 이해해 주려고 하신다.(R)	0.79	0.21	0.75	0.24
46. 나에게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머니(아버지)는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같이 걱정해 주신다.(R)	0.77	0.22	0.74	0.25
32.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R)	0.71	0.30	0.69	0.23
47. 어떤 일에 대해 의논할 때 어머니(아버지)는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R)	0.78	0.20	0.75	0.17
42. 나는 어머니(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하다.(R)	0.74	0.25	0.70	0.22
40. 어머니(아버지)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R)	0.73	0.17	0.71	0.27
20. 어머니(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R)	0.70	0.23	0.62	0.16
29.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머니(아버지)를 만나면 마음이 안정된다.(R)	0.71	0.18	0.77	
21.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R) ^a	0.71	0.26		
48. 어머니는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R) ^a	0.72	0.15		
28.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어머니(아버지)를 믿고 기댈 수 있다.(R)	0.71	0.13	0.78	
34.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판단을 존중해 주신다.(R)	0.70	0.16	0.71	0.18
35. 어머니(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한다.(R)	0.62	0.25	0.68	0.15
36. 내게 고민거리가 있을 때 어머니(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한다.(R)	0.72	0.15	0.74	0.12
43.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머니(아버지)와 의논한다.(R)	0.68	0.17	0.67	0.13
27. 아버지는 내가 필요로 할 때 꼭 함께 있어 줄 것이다.(R) ^b			0.71	
41. 아버지께 내 마음을 솔직히 털어 놓을 수 있다.(R) ^b			0.63	0.32
50. 어머니(아버지)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0.17	0.66	0.12	0.48
53.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어머니(아버지)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	0.23	0.68	0.22	0.72
52. 어머니(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보면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다.	0.18	0.69	0.12	0.46
23. 어머니가 나와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안하다. ^a		0.54		
49. 나는 가끔 어머니(아버지)가 남처럼 느껴진다.		0.64	0.16	0.42
5. 어머니(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	0.21	0.47	0.12	0.55
22. 나는 어머니(아버지)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0.18	0.51	0.12	0.41
55. 요즘 내가 어떤지에 대해 어머니(아버지)는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다.	0.23	0.65	0.19	0.68
54. 어머니(아버지)는 신경 쓰실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내 문제를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0.17	0.52	0.15	0.58
30. 어머니(아버지)를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	0.19	0.47	0.21	0.51
38. 나는 종종 어머니(아버지)께 화가 난다.	0.24	0.44	0.19	0.47
51. 어머니(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보면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다.	0.11	0.49	0.16	0.46
26. 어머니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 ^a	0.21	0.43		
6.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0.16	0.45		0.52
15. 어머니(아버지)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0.39		0.46
18. 아버지는 나에게 대한 생각과 감정이 수시로 바뀌는 것 같다. ^b			0.11	0.51
14.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난다. ^b				0.52

주 1. N=565, 주축 요인 분석, 베리맥스 회전.

주 2. 상이한 위첨자가 붙은 문항은 한쪽 영역에만 포함되는 문항임(a: 어머니 문항, b: 아버지 문항)

등급반응모형은 한 검사는 피험자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특성을 측정한다는 척도의 일차원성 가정을 충족해야(성태제, 2001) 하는데, Reckase(1979)는 첫 번째 요인이 전체 분산의 20% 이상을 설명한다면 일차원성 가정이 만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애착검사의 하위척도별로 제 1요인의 설명비율이 어머니는 전체분산(공통분산)의 27.49%, 아버지는 전체분산(공통분산)의 26.31%로 나와 일차원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고려한 2모수 등급반응모형(Two-parameter Graded Response Model: GRM)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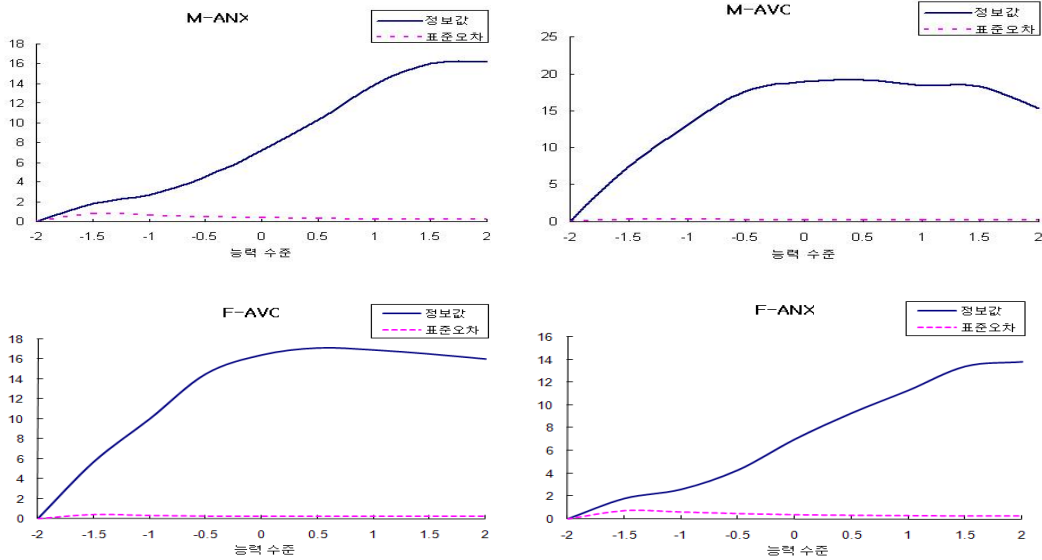
문항반응이론에 따르면 문항변별도가 높을수록 좋은 문항이고(Baker, 1992), 문항변별도는 .65~1.34의 범위일 경우 적절하고, 1.35~1.69의 범위일 경우 높고, 1.70 이상일 경우 매우 높다(성태제, 1991; Baker, 1985). 또한 문항이 전체 능력 범위에 흩어져 있는 피험자의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량인 문항정보의 값이 클수록 좋은 문항이다. 문항변별도가 1.35 이상이면서 문항정보값이 큰 문항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단, 변별도는 다소 낮더라도 문항정보값이 높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선별된 문항들은 다시 상관계수, 제거지수(alpha if item deleted)를 검토하여 나머지 문항들과의 상관계수가 .40이하로 낮고 해당 문항을 포함시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내적 합치도가 크게 증가하는 문항은 추가로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문항변별도, 문항정보값, 상관계수, 제거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한 최종문항은 문항난이도와 함께 표 4에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아동용 부모애착검사의 문항 수는 회피문항 15개, 불안문항 15개,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님을 신뢰하며, 부모와

의 사이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편안해하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해받는지를 측정하는 회피척도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걱정과 자신이 부모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불안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용 부모애착검사의 하위요인별 검사정보함수는 그림 1과 같다. 아동용 부모애착검사의 형태는 회피와 불안척도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회피척도의 경우 검사정보의 양이 최대가 되는 능력수준의 지점이 +0.5 전후 범위였고, 능력수준 0을 기준으로 -에 해당하는 능력수준보다 +에 해당하는 능력수준의 정보양이 훨씬 높았다. 한편 불안척도의 경우 검사정보의 양이 최대가 되는 능력수준의 지점 +1.5 전후 범위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용 부모애착척도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편하고 친밀하게 느끼지 못하는 정도가 중간 이상의 수준인 아동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걱정이나 자신이 부모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을 많이 느끼는 아동들에 대한 정보를 잘 측정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신뢰도

아동애착검사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아버지 .93, 어머니 .94이었다. 회피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아버지 .95, 어머니 .94였고 불안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아버지 .85, 어머니 .86이었다. 또 시간에 따른 척도점수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2주 간격으로 검사를 두 번 실시한 결과 전체 문항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아버지 .76 어머니 .77 이었고 불안과 회피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아버지 .77, 어머니 .71, 불안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아버지 .53, 어머니 .68이었다.



문항양호도와 애착유형의 분류

표 4에 따르면 아동애착검사의 문항변별도는 회피척도 1.52~2.43으로 높고, 불안척도 1.31~2.50으로 대체로 높은 편이며, 문항정보값도 높아 좋은 문항으로 볼 수 있다. 애착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두 단계로 군집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위계적 군집절차 중 Ward의 방법으로 제곱 유클리언 거리를 이용하여 적절한 군집 수를 탐색한 후, 비위계적 군집절차인 K-Means방법 중 최적화방법 (optimization)을 적용했다. 군집 수를 결정하기 위해 Ward의 방법을 이용하여 계수 값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위치에서 대응되는 군집의 수를 살펴본 결과 3~6개로 결정할 수 있었고, ECR-R의 회피와 불안의 두 요인은 회피와 불안의 수치가 높고 낮음에 따라 안정, 몰두, 거부, 두려움의 4유형으로 나누므로 군집의 개수를 4개로 정한 후, K-Means방법으로 회피와 불안의 표준점수

(Z-score)를 이용하여 최종 군집 중앙값을 구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안정형은 회피 -.82, 불안 -.45로 낮았고, 두려움형은 회피 1.57, 불안 3.31로 모두 높았으며, 몰두형은 회피 -.34, 불안 2.53, 거부형은 회피 .75, 불안 -.36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부모애착 유형은 각 케이스별로 변환된 Z점수와 군집중앙값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종 군집 중앙값에 의해 분류된 군집 수는 안정형 267명(51.1%), 몰두형 90명(17.2%), 거부형 142명(27.2%), 두려움형 23명(4.5%)이었다. 아버지의 경우 안정형은 회피 -.77, 불안 -.60으로 낮았고, 두려움형은 회피 1.26, 불안 2.23으로 모두 높았으며, 몰두형은 회피 -.06, 불안 .56, 거부형은 회피 1.15, 불안 -.33으로 나타났다. 최종 군집 중앙값에 의해 분류된 군집 수는 안정형 210명(46.1%), 몰두형 101명(22.1%), 거부형 104명(22.8%), 두려움형 42명(9.0%)이었다.

표 4. 하위척도별 문항양호도

척도명/문항	문항 변별 도	문항 정보 값	문항범주 난이도			상관 계수	제거 지수
			1	2	3		
어머니-회피(Avoidance, Mother)							
45.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어머니는 나를 잘 이해해 주려고 하신다.(R)(*)	2.43	10.81	-0.51	0.48	1.69	.784	.952
46. 나에게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머니는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같이 걱정해 주신다.(R)(*)	2.17	9.29	-0.69	0.35	1.49	.751	.952
32. 어머니는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R)(*)	2.17	8.85	-0.37	0.72	1.83	.768	.952
47. 어떤 일에 대해 의논할 때 어머니는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R)(*)	2.14	9.35	-0.84	0.29	1.71	.758	.952
42. 나는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하다.(R)(*)	2.12	8.49	-0.37	0.55	1.78	.749	.952
20.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R)(*)	1.97	7.21	-0.14	0.90	1.99	.714	.953
40. 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R)(*)	1.94	7.81	-0.69	0.55	1.78	.729	.953
29.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머니를 만나면 마음이 안정된다.(R)(*)	1.90	7.37	-0.55	0.48	1.61	.729	.953
21.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R)(*)	1.87	6.82	-0.28	0.60	1.86	.724	.953
48. 어머니는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R)(*)	1.84	7.08	-0.59	0.54	1.81	.700	.953
28.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어머니를 믿고 기댈 수 있다.(R)(*)	1.81	6.62	-0.39	0.62	1.79	.715	.953
34. 어머니는 나의 판단을 존중해 주신다.(R)(*)	1.77	6.74	-0.71	0.46	1.78	.712	.953
36. 내게 고민거리가 있을 때 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한다.(R)(*)	1.76	6.81	-0.91	0.28	1.81	.726	.953
35.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한다.(R)(*)	1.73	5.47	0.11	1.14	2.31	.679	.953
43.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머니와 의논한다.(R)(*)	1.58	5.75	-1.48	-0.32	1.08	.687	.953
41. 어머니께 내 마음을 솔직히 털어 놓을 수 있다.(R)	1.56	5.49	-0.85	0.15	1.38	.665	.954
24. 나를 믿고 의지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편안하다.(R)	1.55	4.79	-0.07	0.90	2.02	.634	.954
33. 어머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R)	1.52	5.12	-0.58	0.68	2.07	.657	.954
31. 어머니는 어머니로써 책임을 다 하신다.(R)	1.43	3.64	0.45	1.50	2.44	.554	.955
27. 어머니는 내가 필요로 할 때 꼭 함께 있어 줄 것이다.(R)	1.37	4.25	-0.56	0.68	2.09	.609	.954
7. 내가 사랑하는 만큼 어머니도 나를 사랑할 것 이라고 믿는다.(R)	1.24	3.28	-0.08	0.94	1.98		
어머니-불안(Anxiety, Mother)							
52.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2.50	5.9	1.32	2.13	2.91	.629	.858
53.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어머니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	2.41	9.17	0.17	1.23	1.89	.696	.852
50. 어머니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2.06	4.86	1.17	1.99	2.81	.617	.857
23. 어머니가 나와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안하다.(*)	2.01	3.55	1.62	2.55	3.39	.486	.863
49. 나는 가끔 어머니가 납처럼 느껴진다.(*)	1.98	4.69	1.11	2.07	2.57	.590	.858
5. 어머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	1.97	3.29	1.64	2.87	3.64	.467	.864
55. 요즘 내가 어떤지에 대해 어머니는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다.(*)	1.96	6.58	0.18	1.30	2.10	.654	.854
22. 나는 어머니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52	2.96	1.20	2.43	3.54	.464	.863
54. 어머니는 신경 쓰실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내 문제를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1.48	4.21	0.12	1.29	2.20	.499	.863
39. 다른 분이 우리 어머니였으면 좋겠다.	1.47	2.10	1.78	2.89	3.49	.374	.866
30. 어머니를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	1.39	2.69	1.17	2.22	3.35	.437	.864
38. 나는 종종 어머니께 화가 난다.(*)	1.39	3.75	0.12	1.48	2.56	.467	.864

초등학생용 부모애착척도의 구성

표 4. 하위척도별 문항양호도(계속)

척도명/문항	문항 변별 도	문항 정보 값	문항범주 난이도			상관 계수	제거 지수
			1	2	3		
51.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보면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다.(*).	1.38	1.99	1.71	2.72	3.10	.441	.864
26. 어머니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	1.32	2.72	0.94	1.89	2.84	.441	.864
6. 어머니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1.31	1.77	1.80	3.17	4.48	.406	.865
15. 어머니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1.31	2.36	1.25	2.44	3.28	.419	.865
3. 어머니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1.30	1.99	1.58	2.80	3.53	.385	.866
16. 어머니가 나를 무시할까봐 걱정된다.	1.30	2.18	1.41	2.44	3.30	.384	.866
19. 나는 어머니와의 사이에 대해 걱정이 많다.	1.29	2.48	1.08	2.18	2.96		
18. 어머니는 나에게 대한 생각과 감정이 수시로 바뀌는 것 같다.	1.28	2.87	0.59	2.06	3.26		
14.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난다	1.12	2.42	0.42	1.93	3.01		
37. 어머니는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신다.	1.00	2.12	0.17	1.67	2.69		
44.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거나 선생님께 혼난 것과 같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어머니에게 말하기가 어렵다.	0.86	1.78	-0.34	1.28	2.64		
아버지-회피 (Avoidance, Father)							
45.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아버지는 나를 잘 이해해 주려고 하신다.(*)(R)	2.29	9.79	-0.47	0.68	1.90	.755	.946
46. 나에게 걱정거리가 있을 때 아버지는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같이 걱정해 주신다.(*)(R)	2.18	8.96	-0.43	0.71	1.97	.742	.946
29.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버지를 만나면 마음이 안정된다.(*)(R)	2.11	8.16	-0.22	0.70	1.71	.743	.946
32. 아버지는 나를 잘 이해해 주신다.(*)(R)	2.08	7.65	-0.03	1.06	2.11	.714	.947
47. 어떤 일에 대해 의논할 때 아버지는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R)	2.07	8.25	-0.63	0.54	2.21	.733	.946
35.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한다.(*)(R)	1.96	6.53	0.20	1.21	2.27	.675	.947
28.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아버지를 믿고 기댈 수 있다.(*)(R)	1.96	7.20	-0.18	0.75	1.80	.719	.946
42. 나는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 편안하다.(*)(R)	1.95	6.72	0.05	1.09	2.26	.720	.946
40. 아버지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R)	1.95	7.70	-0.56	0.66	1.89	.726	.946
34. 아버지는 나의 판단을 존중해 주신다.(*)(R)	1.94	7.74	-0.67	0.51	1.90	.726	.946
36. 내게 고민거리가 있을 때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한다.(*)(R)	1.88	7.45	-0.72	0.53	1.75	.718	.946
27. 아버지는 내가 필요로 할 때 꼭 함께 있어 줄 것이다.(*)(R)	1.63	5.40	-0.25	0.88	2.08	.685	.947
48. 아버지는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R)	1.62	5.41	-0.40	0.92	2.44	.627	.948
20.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R)	1.54	4.54	0.07	1.21	2.38	.653	.947
41. 아버지께 내 마음을 솔직히 털어 놓을 수 있다.(*)(R)	1.54	5.11	-0.48	0.51	1.71	.651	.948
43.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버지와 의논한다.(*)(R)	1.52	5.33	-0.97	0.42	1.92	.656	.947
24. 나를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편안하다.(R)	1.50	4.32	0.09	1.24	2.26	.601	.948
21.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R)	1.49	4.27	0.15	1.17	2.21	.631	.948
33. 아버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R)	1.42	4.42	-0.40	0.74	2.07	.596	.949
31.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 하신다.(R)	1.30	8.16	0.54	1.86	2.87		
7. 내가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도 나를 사랑할 것 이라고 믿는다.(R)	1.04	2.21	0.32	1.42	2.55		

표 4. 하위척도별 문항양호도(계속)

척도명/문항	문항 변별 도	문항 정보 값	문항범주 난이도			상관 계수	제거 지수
			1	2	3		
아버지-불안(Anxiety, Father)							
5.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	2.29	3.95	1.69	2.69	5.08	.488	.851
53.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버지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다.(*)	2.18	7.6	0.26	1.30	1.91	.658	.838
55. 요즘 내가 어떤지에 대해 아버지는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다.(*)	2.04	6.74	0.32	1.38	2.05	.607	.841
52.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	1.88	3.07	1.68	2.75	3.34	.475	.850
6.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	1.78	3.05	1.57	2.67	3.67	.440	.851
54. 아버지는 신경 쓰실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내 문제를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1.64	4.88	0.20	1.38	2.17	.529	.846
50. 아버지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1.63	2.82	1.51	2.50	3.28	.430	.850
30. 아버지를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	1.60	3.34	1.12	2.18	3.35	.494	.848
39. 다른 분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1.50	2.15	1.77	2.88	3.48	.370	.852
51.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보면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다.(*)	1.48	2.34	1.62	2.64	3.32	.404	.851
49. 나는 가끔 아버지가 남처럼 느껴진다.(*)	1.45	2.4	1.51	2.60	3.04	.405	.851
18. 아버지는 나에게 대한 생각과 감정이 수시로 바뀌는 것 같다.(*)	1.38	3.20	0.63	1.86	2.67	.493	.848
23. 아버지가 나와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안하다.	1.37	1.87	1.83	2.89	3.37	.372	.852
22. 나는 아버지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37	2.25	1.51	2.43	3.27	.446	.849
38. 나는 종종 아버지께 화가 난다.(*)	1.36	3.74	-0.03	1.51	2.57	.484	.848
15. 아버지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1.34	2.37	1.31	2.40	2.91	.431	.850
14.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난다.(*)	1.33	3.47	0.13	1.44	2.67	.504	.847
16. 아버지가 나를 무시할까봐 걱정된다.	1.28	2.18	1.37	2.32	3.06		
3. 아버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	1.24	1.85	1.60	2.81	3.61		
26.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	1.21	1.87	1.51	2.63	3.36		
19. 나는 아버지와 사이에 대해 걱정이 많다.	1.15	1.87	1.34	2.63	3.46		
44.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거나 선생님께 혼난 것과 같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말하기가 어렵다.	0.94	2.06	-0.28	1.36	2.45		
37. 아버지는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신다.	0.92	1.88	0.04	1.57	2.42		

주 1. 하위척도별 문항변별도의 크기 순으로 제시하였고 점선 위까지가 일차적으로 선정한 문항임.

주 2. 문항정보값은 -2.0~+2.0의 능력범위에 관한 값임.

주 3. * 표시한 문항은 최종적으로 도출한 단축형 문항이며 (R)은 역채점 문항임.

애착유형에 따른 애착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Scheffé 사후검증한

자료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회피와 불안척도는 안정형, 몰두형, 거부형, 두려움형 애착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어머니-전체 척도(F(3, 499=680.91, $p<.001$)에서는 두려움형, 몰두형, 거부형, 안정형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어머니-회피척도(F(3, 499=404.46, $p<.001$)에서는 두려움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몰두형, 거부형, 안정형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몰두형과 거부형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

$p<.001$)에서는 안정형, 거부형, 두려움형과 몰두형 집단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전체 척도에서는 두려움형이 거부형, 몰입형, 안정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거부형은 몰입형과 안정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몰입형은 안정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아버지-불안 척도에서는 두려움이 몰두형, 거부형, 안정형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몰두형은 거부형과 안정형보다 높았고, 거부형은 안정형보다 높았다. 아버지-회피 척도(F(3, 486=421.70, $p<.001$)에서는 두려움형과 안정형, 두려움형과 몰두형 간에는 유의미하게 두려움형이 높았으나 두려움형과 거부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5. 애착유형에 따른 아동용 부모애착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안정형 (n=227)	몰두형 (n=97)	거부형 (n=115)	두려움형 (n=61)	전체 (n=500)	F
어머니-전체	10.63 _d (6.74)	31.18 _c (8.48)	39.65 _b (10.32)	65.75 _a (13.37)	28.02 (20.61)	709.99* **
어머니-회피	7.51 _d (6.23)	19.44 _c (7.95)	34.95 _b (9.17)	40.54 _a (10.58)	20.16 (15.38)	461.23* **
어머니-불안	3.13 _d (2.70)	11.73 _b (3.89)	4.70 _c (3.65)	25.21 _a (7.33)	7.85 (8.24)	459.08* **
	안정형 (n=231)	몰두형 (n=106)	거부형 (n=112)	두려움형 (n=38)	전체 (n=487)	F
아버지-전체	10.09 (6.93)	27.90 _c (8.39)	40.02 _b (10.06)	61.92 _a (14.36)	24.89 (18.52)	558.36* **
아버지-회피	7.13 _c (6.26)	14.29 _b (7.52)	34.15 (8.87)	35.05 _a (11.12)	17.08 (14.12)	390.97* **
아버지-불안	2.96 _d (2.26)	13.60 _b (4.19)	5.87 _c (4.21)	26.87 _a (7.45)	7.81 (7.89)	503.97* **

주 1. *** $p<.001$.

주 2. 상이한 아래첨자가 붙은 평균들은 사후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a>b>c>d, $p<.05$).

머니-불안척도(F(3, 499=695.60, $p<.001$)에서는 두려움형과 몰두형, 두려움형과 거부형, 두려움형과 안정형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안정형과 거부형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전체 척도(F(3, 486=636.34, $p<.001$)와 아버지-불안 척도(F(3, 486= 513.68,

논의

아동기 애착이 청년기 성인기의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초등학생의 애착을 측정하는 것이 의미 있음을 알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애착 측정 도구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빠르고 쉽게 아동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검사를 개발하여 그 신뢰도를 알아보고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해서 문항의 양호도 및 특성을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척도와 애착 유형의 신뢰도와 문항의 양호도 및 특성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용 부모애착검사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회피의

경우 어머니 .94, 아버지 .95, 불안의 경우 어머니 .86, 아버지 .85로 높았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회피의 경우 어머니 .71, 아버지 .77, 불안의 경우 어머니 .68, 아버지 .53이었다. Brennan 등(1998)의 연구에서 ECR의 회피차원과 불안차원의 내적 합치도가 각각 .90, .91이었고, Fraley 등(2000)의 ECR-R의 회피와 불안은 각각 .95, .93, 황경옥(2001)이 번안한 척도는 회피 .60, 불안 .86이었다. 문혜정(2004)의 연구에서는 회피 .86, 불안 .67로 본 연구에서 구성된 애착검사의 신뢰도가 양호함을 알 수 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53 이상으로 척도점수가 시간적 변화에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항의 양호도를 판별하기 위해 문항 반응이론(IRT)을 이용하여 아동용 부모애착검사의 문항변별도와 문항정보값을 살펴본 결과 문항변별도가 회피척도 1.52~2.43, 불안척도 1.31~2.5, 문항정보값은 회피척도 4.54~10.81, 불안척도 1.77~9.17로 높아서 좋은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용 부모애착검사의 차원을 확인하기 위해 척도 간 상관을 구한 결과 아버지 .41($p < .01$), 어머니 .50($p < .01$)으로 불안과 회피 간의 상관이 유의미하게 나왔다. 이는 Brennan 등(1998)이 불안(자기모형)과 회피(타인모형)이 서로 상관이 낮다(.11)는 보고와 Fraley 등(2000)의 ECR-R에서 잠재적 특성이나 외부적 요인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 불안, 회피 두 요인 구조가 독립적인 구조라고 한 결과와는 반대되지만, 이명선(2003)의 연구에서는 회피와 불안의 두 요인 간 상관이 .58로 높게 나오는 것은 한국

인들이 자기와 타인(애착대상)과의 경계가 모호하고 우리라는 독특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회피와 불안간의 상호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각 나라의 국민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애착의 성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애착 유형을 분류하기 위계적 군집절차 중 Ward의 방법과 K-Means방법 중 최적화방법(optimization)을 적용하여 최종군집 중앙값을 구한 후,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회피와 불안의 두 요인의 최종군집 중앙값의 위치에 따라 애착유형이 나누어진다. 회피와 불안이 모두 낮으면 안정형, 회피가 낮고 불안이 높으면 몰두형, 회피가 높고 불안이 낮으면 거부형, 회피와 불안이 모두 높으면 두려움형의 4유형으로 나누었다.

아동용 부모애착척도는 어머니의 경우 안정형은 회피 -.82, 불안 -.45로 낮았고, 두려움형은 회피 1.57, 불안 3.31로 모두 높았으며, 몰두형은 회피 -.34, 불안 2.53, 거부형은 회피 .75, 불안 -.36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 안정형은 회피 -.77, 불안 -.60으로 낮았고, 두려움형은 회피 1.26, 불안 2.23으로 모두 높았으며, 몰두형은 회피 -.06, 불안 .56, 거부형은 회피 1.15, 불안 -.33으로 나타났다.

이는 Fraley 등(2000)의 ECR-R에서 안정형은 회피 -1.02, 불안 -.67, 두려움형은 회피 .94, 불안 .52, 몰두형은 회피 -.34, 불안 1.10, 거부형은 회피 .78, 불안 -.91의 수치와도 비슷하다. 또, 애착유형에 따라 척도점수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유의 확율이 .05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동용 부모애착을 4유형으로 분류한 것은 유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용 부모애착척도를 군집분석한 결과 모애착은 안정형 267명(51.1%), 몰두형 90명(17.2%), 거부형 142명(27.2%), 두려움형 23명(4.5%)이고, 부애착은 안정형 210명(46.1%), 몰두형 101명(22.1%), 거부형 104명(22.8%), 두려움형 42명(9%)으로 안정형, 거부형, 몰두형, 두려움형 순으로 분류가 되었다. 외국의 연구들 중 Fraley 등(2000)의 ECR-R에서는 안정형 30.4%, 몰두형 24.4%, 거부형 20.8%, 두려움형 24.4%, Bartholomew(1991)는 안정형 47%, 몰두형 18%, 거부형 14%, 두려움형 21%으로 안정형, 두려움형, 몰두형, 거부형 순으로 분류되었다. 국내 연구는 박고운과 이기학(2007)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정형 54.3%, 몰두형 23.5%, 거부형 16.0%, 두려움형 6.2%로 분류하였고, 옥정, 오윤희와 정현옥(2001)은 청소년을 정상집단, 위험집단, 비행집단으로 나누어 애착유형을 나누었는데 그중 정상집단은 안정형 48%, 몰두형 34%, 거부형 18%, 두려움형 0% 순으로 나타났다. 안정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은 비슷하지만 외국의 연구와는 두려움형과 거부형에서, 국내 연구와는 몰두형과 거부형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와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서로 다른 기준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애착유형을 측정하는 대상의 연령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진미경과 신경숙(2007)의 연구에서는 만 5~7세 아동을 대상으로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를 이용한 결과 안정 54%, 저항 9%, 회피 28%, 비조직화 9%로 분류되었는데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안정은 본 연구의 안정형, 저항은 몰두형, 회피는 거부형, 비조직화는 두려움형과 일치한다고 볼 때, 본 연구와 같이 비교했을 때 각 유형별로 애착유형 분포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아동애착검사는 내적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한 구인타당도 측면에서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애착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상담이나 학교생활에서 아동의 대인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부모와의 애착유형을 바탕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아동애착검사의 하위척도별로 일차원성 가정에 대한 추가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용 애착검사의 문항 양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 등급반응모형은 한 검사는 피험자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특성을 측정한다는 척도의 일차원성 가정에 근거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애착검사의 하위척도별 일차원성 검증을 주축요인분석을 적용한 요인분석 결과 아동애착검사의 하위척도별로 제 1요인의 설명비율이 어머니는 전체분산(공통분산)의 20.49%, 아버지는 전체분산(공통분산)의 26.31%로 나와 일차원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등급반응모형(Graded Response Model: GRM)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하위척도별 상관분석 결과 아버지 .41($p < .01$), 어머니 .50($p < .01$)로 상관이 높게 나와서 독립적 척도라고 하기엔 미흡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통계적 방법을 통해 아동애착척

도의 하위척도별로 일차원성을 검증하는 후속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애착검사에 대한 타당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이론을 통해 문항을 구성하고 기본적인 신뢰도를 알아보았으나, 본 연구에서 분류한 애착유형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여 애착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하였을 때 각 유형에 해당되는 아동이 실제로 그러한 애착유형이고 그에 따른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진경 (2000).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경애 (1984).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정 (1996).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창현 (2003). 부모부재 청소년의 성격장애: 대상관계 및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나리 (2002). 대학생의 이성 관계에서 애착이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혜정 (2004). 성인애착 및 자의식유형에 따른 대인 관계문제 수준의 차이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영숙 (2006). 초등학교 5, 6학년의 애착유형에 따른 대인불안, 공격성 및 또래관계와의 관계.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고운, 이기학 (2007).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수용 및 친구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71-85.
- 박지선 (2008). 애착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정 (2001). 아동중기의 애착 안정성과 자기상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낙훈 (1997). 아동용 애착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태제 (1991). 문항반응이론입문. 서울: 양서원.
- 옥 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정, 오윤희, 정현옥(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2), 259-270.
- 유복귀희 (2007). 아동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선 (2003). 인간관계 스트레스와 공부 스트레스가 애착 체계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하경 (2003). 학령기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7a). 청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5.

- 장휘숙 (1997b).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1), 80-97.
- 전영식 (2007). 어머니의 애착유형과 장애아동의 애착 안정성.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 오미경 (1993).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기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85-95.
- 진미경, 이경숙 (2007). 아동기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의 가족화 연구. *아동학회지*, 28(4), 187-196.
- 허나원 (2001). 아동의 우울과 애착 및 양육태도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경옥 (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aker, F. B. (1985). *The basic of item response theory*. New Hampshire: Heinemann.
- Baker, F. B. (1992). *Item response theory: Parameter estimation techniques*. New York: Marcel Dekker, Inc.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 among young adult: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rennan, K. A., Clarks,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 (pp. 46-76). New York: Guilford.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Green, F., Stanley, C., & Goldwyn, R. (2003).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Manchester.
-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underlying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430-445.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Main, M., & Solomon, J. (1986). Discovery of an insecure disorganized/disoriented attachment pattern procedures, finding, and implications

- for the classification of behavior. In M. Yogman & T. B. Brazelton (Eds.), *Affective development in infancy*. Norwood, Nj: Ablex, 95-124.
- Samejima, F. (1969). Estimation of latent trait ability using a response pattern of graded scores. *Psychometrika Monograph, No. 17*.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71-980.
- Simpson, F. A., Rholes, W. S., & Phillips, D. (1996). Conflict in clos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799-914
- Thissen, D. M. (1991). *MULTILOG: Multiple, categorical item analysis, and test scoring using item response theory (computer program)*. Moorsville: Scientific Software Inc.
- Torquati, J. C., & Vazsonyi, A. (1999).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for affect, appraisals, and coping of late adolescent females. *Journal of Youth & Adolescent, 5*, 545-562.

- ◆ 원 고 접 수 일: 2010년 7월 20일
- ◆ 수정원고접수일: 2010년 9월 8일
- ◆ 계 재 승 인 일: 2010년 9월 15일

Construction of Parent attachment Scale for Children

Hyun-sook Lee

Ungnam elementary school

Sang-hwang Hong

Dept. of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Parent Attachment Scale for Children. Adapting the item consisting method used in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ECR-R), Parent Attachment Scale for Children was constructed to measure child's attachment style with their parent, reliably and validly. Also, reliability and item trait informations based on item response theory were reviewed. First preliminary items were derived from the original items of ECR-R and existing Attachment Inventories. These items were modified and complemented to be easier and keep the original meaning of each item. Second preliminary items were administrated to 4~6th grades students(N=576). Finally, Parent Attachment Scale for Children were consisted with 30 items based on two-parameter graded response model. Internal consistency ranges of the scales of Parent Attachment Scale for Children are as follows : Avoidance scale is .94~.96; Anxiety scale is .85~.88. Test-retest reliability ranges are as follows; Avoidance scale is .71~.80; Anxiety scale is .53~.68. Item discrimination and item information value were within an appropriated range.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ith Ward's Method revealed four types of attachment style : Secure, Dismissing, Preoccupied, Fearful. Other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 Attachment, Attachment Scale, Attachment Type, Item response theory